

욥기

세션 1: 책에 대한 해석 문제와 그릇된 생각

존 월튼

이것은 Dr. John Walton과 욥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1: 책에 대한 해석 문제와 그릇된 생각입니다.

소개 [00:24-2:06]

안녕하세요, 저는 존 월튼입니다. 저는 휘튼 칼리지에서 구약을 가르칩니다. 저는 이곳에 온지 15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Moody Bible Institute에서 20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저는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신시내티에 있는 히브리 유니온 칼리지에서 일하면서 제가 하는 일에 잘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문자를 보내는 사람입니다. 즉 히브리어 텍스트든 고대 근동의 텍스트든 텍스트를 분석합니다. 나는 우리가 성경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그것들을 함께 모으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함께 욥기를 볼 것입니다. 욥기는 매우 어려운 책입니다. 그것은 구약의 페이지 내에서뿐만 아니라 전체 고대 세계 내에서도 독특합니다. 욥기와 같은 것은 없습니다. 확실히, 어느 지점에서 그것과 겹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책의 다양한 부분뿐만 아니라 책 전체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옅기와 그것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 함께 생각하면서 작업할 것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옅기를 다룰 때 직면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사방에 해석 문제가 있고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옅기에는 처음부터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리즈의 시작 부분에서 그것들을 선택하고 올바른 방향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옅이 뭐라고 합니까? [2:06-3:32]

다루어야 할 첫 번째 문제는 책이 실제로 무엇을 말하는가입니다. 옅기의 히브리어는 구약에서 가장 어려운 히브리어입니다.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옅기 에서 만나는 히브리어 성경에는 단 한 번 나오는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 어려운 구문이 있습니다. 단어의 의미와 사용법을 이해하는 데는 온갖 종류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작업은 매우 어려운 히브리어 책을 번역하는 것입니다.

번역의 지점에 이르더라도 문학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저자는 책을 어떻게 포장했습니까? 작동시키기 위해 어떻게 결합 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욱기가 패치워크 이불이고 일부 부분은 원래 없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른 부분이 추가되면서 점차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부분들이 서로 상충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나는 그런 의견이 아니다. 나는 욱기를 하나의 통일된 전체 일관성 있는 본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것이 문학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하려면 약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자는 이 책을 어떻게 구성하여 작동하게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행하면서 그 중 일부를 살펴볼 것입니다 .

철학적/신학적 문제 [3:32-4:32]

다음으로 우리가 다루어야 할 것은 철학적 문제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입니다. 책이 주장하는 신학적 요점. 우리는 욱기에서 일부 화자가 틀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틀리기 위해 거기에 있습니다. 욱의 친구들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진실의 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심지어 많은 진실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하는 일이 본질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을 골라낼 수 있어야 합니다. 책의 신학은 어떻게 작용합니까? 그것이 하는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철학적/신학적 측면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

일단 우리가 거기에 도달하면, 우리는 책 자체의 신학은 어떻습니까? 기독교 신학, 오늘날의 기독교인은 어떻습니까? 라는 주제로 옮겨야 합니다. 우리는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제공해야 합니까?

잘못된 기대[4:32-5:42]

이제 책에 대한 잘못된 기대 중 일부는 책이 전달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책이 고통에 대해 알려주고 자신이 고통받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읽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책의 끝 부분에 이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어리둥절해 합니다. 무슨 일이야? 그런 다음 욥은 이 모든 것을 되찾고 책은 끝납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기 때문에 매우 불만족스러워 합니다. 책은 무엇을 전달해야 하는가? 욥기를 읽으면서 세상이나 삶에 고난이 있는 이유에 대한 답을 얻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그것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1) 욥에게 시련이 있습니다. 욥은 재판을 받지 않는다[5:42-7:48]

그래서 책이 하는 일과 하지 않는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욥에게는 시련이 있습니다. 욥은 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욥은 자신이 재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친구들은 그가 재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책은

처음부터 욱이 재판을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결국 첫 두 구절에서 그가 무죄를 선고받는다면 어떤 시련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주요 등장인물들이 끝까지 가더라도 여기서 욱이 문제가 아니라고 계속 주장합니다. 그래서 욱은 시련이 있어도 시련을 받지 않습니다.

욕은 자신이 형사 사건의 피고이고,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재판을 받는 사건의 피고인처럼 느낍니다. 욱은 그것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는 민사 소송에서 원고가 되도록 설정하려고 합니다. 즉, 그는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부적절하게 대우받았으며 그에 대한 보상, 즉 방향 전환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는 피고가 아니라 원고가 되도록 상황을 바꾸려고 합니다. 전략의 흥미로운 작은 변화입니다. 그러나 사실 둘 다 정답은 아닙니다. 우리는 독자로서 발견하지만 욱은 결코 이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독자로서 우리는 욱이 변호를 위한 스타 증인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역할을 하고 있거나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러므로 욱은 시련이 있지만 시련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2) 욱은 욱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7:48-9:3 1).

두 번째 요점은 어떤 사람들은 이 책으로 시작해서 그것이 욱기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 책이 욱에 관한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그 책은

모두 욱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책은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욱이 주인공입니다. 욱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책은 욱보다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책의 끝에서 우리가 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책에 접근할 때 우리는 욱에 관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찾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욱이 고통, 인내, 상호 작용 또는 그 어떤 것에 대한 역할 모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책에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욱은 롤 모델이 아닙니다. 욱은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의 반응은 때때로 좋은 것이었고 때로는 나쁜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욱이 우리에게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서이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이요, 지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요점이었습니다. 그것은 욱에 관한 것보다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3) 욱은 하나님의 공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9:31-13:05].

셋째, 우리는 종종 이 책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책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공의에 관한 책이라는 것.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아니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것이하의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결국 하나님이 자신의 말을 했을 때 자신의 정의를 옹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는 정의의 관점에서 펼쳐지는 시나리오를 결코 설명하지 않습니다. 욕기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무언가를 찾고 있다면, 다시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 책이 하나님의 공의를 설명하거나 변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욕의 비난은 하나님의 공의에 관한 것입니다. 고통에 대한 우리의 질문은 종종 하나님의 공의와 관련이 있지만 욕기는 하나님의 공의를 변호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의 지혜를 변호합니다. 이것은 정의의 책이 아니라 지혜의 책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변호합니다.

그것이 그의 정의를 옹호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매번 정당화하고, 입증하고, 어떻게든 설명하고, 방어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정보가 필요합니다. 정의는 탁자에 있는 모든 정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법정에서 어떤 판결과 유명한 재판에 대해 듣는다면, 우리 앞에 모든 증거가 없다면 정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소용이 없습니다. 판사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심원단은 증거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거의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의가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결코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의로우신지 아닌지를 논할 입장이 아닙니다. 사실, 전체 프레임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정의라는 외부 범주가 있고 하나님이 그것에 순응하신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것에도 순응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가 측정해야 할 그의 외부에 어떤 것이 있다는 우발성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에 대해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발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은 외부적인 기준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정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모든 기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정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4) 옳은 고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13:05-14:33]

넷째, 이 책은 우리에게 고통에 대해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치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고통은 우리가 어떤 수준에서 경험하고 관찰하든지 간에 힘든 것입니다. 우리는 설명을 듣고 싶지만 이 책은 고통에 대해 생각하는 방법을 알도록 돕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방법을 알도록 돕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합니까? 우리는 그를 비난합니까? 우리는 그에게 화를 냅니까? 우리는 그를 무시합니까? 우리는 그에게서 도망치는가? 우리는 무엇을해야합니까? 우리 주변의 세상이 잘못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의 삶이 내리막 길을 가고 있을 때 모든 것이 남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합니까?

결국,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는 이것을 고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욥과 그의 친구들과 함께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이 책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욥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것이라는 앞에서 우리가 언급한 요점으로 되돌아갑니다.

5) 욥은 답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14:33-16:08].

다섯째,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고통을 설명할 수 있는 답을 얻기 위해 욥기를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고통을 설명할 수 있는 대답.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든 곳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욥기가 우리에게 해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답변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을 찾기 위해 욕기로 갑니다. 이 책은 대답보다 신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답을 알고 있다면 신뢰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뢰는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를 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신뢰는 우리의 무지와 혼란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켜야 합니다. 욕기는 답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신뢰를 요구할 것입니다.

6) 욕기는 왜 또는 어떻게 고난을 받는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에 관한 것입니다 [16:08-17:24]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로, 이 책은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보다 의를 구성하는 요소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 장에서 바로 탁자 위에 놓인 질문이 하나님께 던진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욕이 공짜로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정말 욕의 의를 동기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입니다. 그의 의는 정말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까? 결국 욕이 자기가 하는 대로 행하고 의롭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서 그 모든 일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형통함과 상급을 바라면 그 일이 서지 못하리라 모든 좋은 혜택을 빼앗길 때; 소위 의로움은 바람에 녹아버릴 것입니다.

욕의 메시지 [17:24-19:12]

그래서 이것은 의에 관한 책입니다. 고통받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에도 의롭게 되라고 도전합니다. 의로움은

우리의 삶을 특징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의로움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관대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신실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재판기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책의 질문은 사람들이 의롭게 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단순히 욥기에서 의로움이 시험되는 방식입니다. 욥의 의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 고난이 있습니다.

따라서 책의 끝 부분에 도달할 때쯤이면 내가 왜 고통을 겪고 있는지 알아낼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까? 우리는 다음을 발견할 것으로 기대해야 합니다. 나는 진정으로 의로운가? 나는 잘못된 이유가 아니라 올바른 이유로 의로운가? 나의 의는 고난의 시험을 견디는가? 그것이 바로 이 책이 우리가 알아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욥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복습: 식스 포인트 [19:12-21:10]

그래서 이 여섯 가지 사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욥은 시련을 겪었지만 시련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책은 욥에 관한 것보다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공의보다는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이 책은 고통에 대해 생각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이 책은 대답보다 신뢰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우리가 고난을 겪는 이유보다 무엇이 의로움을 구성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여섯 가지 요점은 우리가 욕기에 있을 수 있는 잘못된 개념, 오해, 잘못된 기대를 제쳐두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여섯 가지 질문은 책이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는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삶, 서로, 하나님, 세상에 대해 잘못된 기대를 세운다면; 잘못된 기대치를 설정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실제로 어떻게 일하시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며, 욕기가 그 일에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의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 함께 페이지를 들여다 봅시다.

이것은 Dr. John Walton과 욕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1: 책에 대한 해석 문제와 그릇된 생각입니다. [21:10]